

현·전직 군수에 도의장 가세 3파전

서기동-전경태 '3번째 격돌' 오차범위내 접전 박인환 '도의원 성과' 발판 급피치 추월 자신

■ 구례군수 입지자

구례군수 선거는 다자간 구도가 된 적이 없다. 양강, 또는 3강 구도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1998년 2기 민선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전경태(62) 전 군수가 당선될 때도 양강 구도였고 3기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서기동(61) 현 군수와 전 전 군수와 맞대결을 펼친 3기 선거에서는 전 전 군수가 승리했으나 지난 2006년 펼쳐진 4기 선거에서는 서 군수가 설욕을 했다. 열린우리당 옷을 입은 서 군수가 민주당의 전 전 군수를 박빙의 표차로 누르며 3선을 저지한 것이다.

이번에도 서 군수와 전경태 전 군수는 대결을 펼치게 됐다. 이 양강 구도에 박인환(60) 전남도의회 의장이 도전장을 던지며 구례군수 선거는 3인의 후보가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펼치는 3강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23일 현재 전경태 전 군수와 서기동 현 군수가 박인의 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박인환 의장이 급피치를 올리며 오차 범위까지 추격해 것으로 구례 정가에서는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바람과 함께 당선된 서기

■ 구례군수 입지자

(가나다 순)



동 군수는 전경태 군수와 이번에 3번째 대결을 펼친다. 지난 선거에서 의외의 승리를 한 여세를 몰아 재선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서 군수는 지난 4년 동안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둬두고 자부하고 있다. 그는 "취임 전인 지난 2005년말 정부의 재정운영 평가에서 구례군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였다"며 "하지만 취임 후 재정 건전화 노력을 벌인 결과, 지난해 재정운영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할 정도가 됐다"고 자랑했다. 그는 또 "지난 2006년말 1천280여여원의 예산이 지난해 2천100여여원으로 700억원 이상 늘어나는 등 재정 확충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서 군수는 이어 "취임 전 전체 예산의 17~18%에 불과한 농업 예산이 올해 27%까지 되도록 늘리는 등 친환경농업 정책으로 농민에게 희망을 줬으며 각종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 구례' 건설에 많은 역할을 했다"며 "구체적으로 지리산 권역은 수목원과 자생식물원, 생태 숲 등을 연계한 야생화 생태공원과 산수유 테마파크 등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고 섬진강권역은 자전거 도로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정부사업에 반영했으며 친환경 고품질 쌀을 도정만 오분도미가 처음으로 호추에 수출되고 구례동편소리 축제와 전국여성친화장사씨름대회 등 풍성한 문화·체육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4년으로는 아쉬움이 많다"며 "4년만 더 하며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의 결실을 본 뒤 3선 도전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 군수가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경태 전 군수의 벽을 다시 넘어야 한다. 전 전 군수는 초대 구례군의회 의장을 지내고 2, 3기 민선군수를 지냈으며 4년 동안 외신상담 복수를 다짐하고 있어 만만치 않은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전 전 군수는 "사실은 출마하지 않을 생각도 있었지만 지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군 발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까닭에 주변에서 출마 요구가 빗발쳤다"며

"특히 군내 세력 간 갈등으로 피해를 본 인사들이 재기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선 기간 동안 계획했던 수많은 구례 발전 프로젝트가 모두 중단된채 내 손길만 기다리고 있다"며 ▲지리산 50분의 1 축소 미니이차 마을 건설 ▲장수체험대학 설립 ▲서울 잠실에 제2 구례학사 건립 ▲다문화가정 보육시설 확충 ▲섬진강 마라톤 부활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 전 군수는 "서 군수가 이 같은 구례 발전 전략을 폐기하지 않고 군정 연장선상에서 추진했다면 출마할 생각이 없었지만 많은 것이 중단됐다"며 "구례군 발전을 위해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며 출마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리산 운현'이 문 닫게 된 것에 대해 아쉬워 하며 "군민이 기회를 준다면 반드시 운현을 다시 열어 관광 구례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같은 두 사람의 3번째 대결에 박인환 전남도의회 의장이 끼어들었다. 박 의장은 구례에서 전기공사업과 사업 경영하는 등 사업을 하다가 지난 1996년 당시 양성철 국회의원의 구례 연락소장 역할을 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이후 2002년 전남도의회에 당선됐고 지난 2006년에 재선에 성공했다가 이번에 한 단계 급을 격

상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2선거구 도의원을 함만큼 1선거구가 취약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박 의장은 "올 1월부터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이후 그런 우려는 사라지고 있다"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파른 지지도 상승세를 보이며 전·현직 군수를 위협하고 있어 조만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의장은 8년 도의원에 대한 자책평가에서 "공의면의 야생화 타운을 만들고 시장 현대화사업을 이룩한 것은 물론 특히 구례 교육 예산을 8년 사이에 3배 이상 늘렸다"며 "섬진강 사업비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 700억원 이상 증액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년 사이 구례를 중심가의 점포가 80여개나 문을 닫고 2008년에만 인구가 500명이나 줄어든 등 구례는 생존을 걱정해야할 정도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난 4년간 허송세월을 극복하고 군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산동면의 행글라이더 활공장 건설 등 구례의 레포츠 메카화 ▲서시천 생태하천 내 10km 장미공원 조성 ▲행복마을 은퇴자 타운 건설 ▲섬진강 생태하천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 쟁점 & 변수

서기동 현 군수, 전경태 전 군수, 박인환 전남도의회 의장 간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향후 구례군수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전 군수와 서 군수는 3번째 대결인데다 각종 송사 문제로 함께 가는 힘든 사이.

또 서 군수와 박 의장은 중학 동창으로 친구 사이지만 지난 지방선거 이후 서 군수의 견제로 사이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 전 군수는 일단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차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 구례 정가의 일반적 관측이다. 그만큼 고정지지층 30% 내외를 자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서 군수와 박 의장이 경선에서 대결이 불가피하고 이때 전 전 군수는 박 의장을 지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서 군수가 민주당 공천을 받을 경우 박 의장은 전 전 군수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는 등 서 군수에 대한 다른 후보의 반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도의원 수가 한 명으로 줄면서 군수후보와 도의원 후보 간 연대 가능성

- ① 전경태 무소속 출마 선회?
- ② 군수후보-도의원후보간 '연대'
- ③ '화합 염원' 군민들의 선택은

도 접착되고 있다. 구례 정가에서는 우선 박인환 의장과 김종영 군의원의 연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두 후보가 처남-매제 사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 의장은 2선거구 출신이나 김 군의원은 1선거구인 구례읍의 보좌관 수 있어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기동 군수와 고택은 도의원 간의 연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 모두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보 간 연대가 활성화되면 전경태 전 군수와 이영배 구례세운자문학회원 원장 간 연대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애초 더할 나위 없이 가까운 사이였던 이들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사이가 멀어져 현재까지 서머한 관계지만 정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2만7천여명의 구례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갈등이 치유되기보다 골을 더 깊어져 가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 갈등의 골은 한 번도 치유된 적이 없었다. 이번 구례군수 선거에서도 벌써 200여 건의 선관위 고발이 있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두 후보가 한 후보의 배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선거 이후 갈기 갈기 지역민의 민심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선거 기간 동안 화합을 염원하는 군민들이 바람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 도의원 입지자

구례군은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최근 여야간 정치개혁특위 협상 결과 2명의 전남도의회원이 1명으로 줄어드는 아픔을 겪었다.

비록 두 도의원 중 한 명인 2선거구(토지·마산·광의·용방·산동면)의 박인환 의원이 군수선거에 나섰지만 1선거구(구례읍, 문척·간전면)의 고택은(53) 의원, 김종영(53) 군의원, 이영배(60) 구례세운자문학회원 원장, 정정섭(46) 전 구례군 농민회장 등 모두 4명의 입지자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고택은 의원은 대학 재학과 군 입대 기간을 제외한 모든 기간을 구례에서 보낸 토박이 정치인.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전남도의회에 당선된 후 농수산위·건설소방위·예결위 등에서 활약을 펼치다가 이번에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고 의원은 "주민과 함께하는 동반자이고 구례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친근한 이웃이 되고 싶다"며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구례, 전국 최고의 친환경 명품브랜드, 농민이 웃고 사는 환경, 시민이 행복한 구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영배 원장은 일단 민주당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조만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행한다는 생각이 든다.

인구 급감... 선거구 1곳으로 줄어 현직 도의원·군의원 등 4명 경쟁

■ 도의원 입지자

이름	경력
고택은(민·53)	전남도의원
김종영(민·53)	구례군의원
이영배(민·60)	세운자문학회원 원장
정정섭(민·46)	전 구례군 농민회장

지난 2006년 전남도의원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실패한 이 원장은 "구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자유총연맹 구례군지부장,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이사과 전남협회장 등을 역임하며 쌓은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구례군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비록 정치 경력을 화려하지 않지만 구례 유일의 운전학원 원장으로 그동안 1만2천여명의 학원생을 배출하는 등 인지도면에서 기존 정치인이 뒤지지는 않는다"고 자부하며 필승을 자신했다.

김종영 군의원은 중학교까지 구례에서 다니다가 고교는 광주, 대학은 울산에서 다니며

타향살이를 했지만 결국 구례로 돌아와 민주당을 지켰던 인물. 지난 지방선거 첫 도전해 군의원에 당선된 여세를 몰아 이번에 도의원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1천500여명의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 화장비를 지원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말했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지난 1987년 귀향 후 농민운동을 펼쳐온 정정섭 전 농민회장은 "농민회와 여성농민회를 만들고 기아차노조와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 쌀 판로를 개척했다"며 "사회적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다양한 농업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2배 보전, 이억특화특구사업을 통한 인구 늘리기 등으로 살맛나는 구례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대한민국 최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상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09년 1월 1일부터 L.A.H. 브랜드 농산물 제조 100% 인증 제품만을 생산하며, 전 세계에 내놓는 한식에서 가장 맛있는 L.A.H. 전통 농산물만을 생산하며,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엔리시아

출판사, 마포점, 새하나 경춘 코딩 및 행사 (300명 전)

소규모(100명): 1인서, 1인서, 2인서, 3인서
대규모(100명): 4인서, 5인서, 100인서

082-671-1199